

우리의 시대의 삶
2002 정기우품이





9

끓어졌던 맥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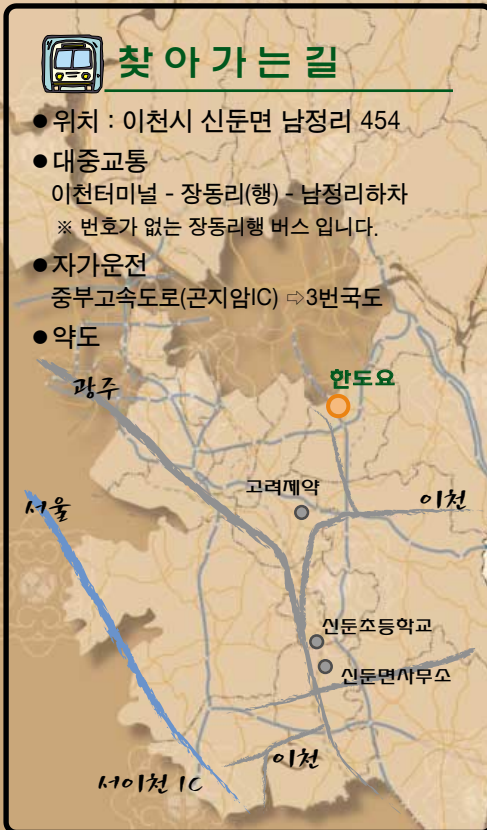
도사공에 서 광 수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도에가는 이천으로 보내라 “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이천에는 도사기를 만들기에 적합한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신비로운 푸른 빛깔이 마치 비취옥의 색과 같다하여 비색이라 불리며 우아한 선을 자랑하던 귀족적인 고려청자와 소박하고 단아한 서민풍의 조선백자는 우리민족이 사랑하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다.



찾아가는 길

- 위치 : 이천시 신문면 남정리 454
- 대중교통
이천터미널 - 장동리(행) - 남정리하차
※ 번호가 없는 장동리행 버스입니다.
- 자가운전
중부고속도로(곤지암IC) ⇨ 3번국도
- 약도



장작가마 지키는 한국 도예의 자존심

이천도자기는 이천시 사음동, 신둔면 일대에 약 300여 업체가 집산되어 있으며, 특히 40여개의 전통 장작가마(등요)에서 생산된 전통기법 그대로의 도자기 작품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조선말 관요의 폐쇄로 맥이 끊겼던 전통 도자기가 이천에서 재현되어 국내외에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 것은 수광리 칠기가마의 존재가 계기를 마련하였고, 전통 도자기를 재현하려는 당대의 대표적인 전통 도예장인들이 칠기가마를 매개체로 이천 수광리로 모여들어 전통도자기 제작과 재현을 위해 노력하여 유근형(해강청차연구소)옹의 고려청자 재현과, 지순탁(고려도요)옹의 이천도자기 성가제고 노력, 조소수(광주요)옹의 일본시장 개척으로 고려청자의 맥을 이은 이천도자기가 일본을 비롯해 전국에 널리 소개된 데 있다.

또한 이천 신둔면 일대는 산간지대와 연결되어 화목의 주원료인 소나무가 풍부하고, 도자기의 주원료인 점토나 사토 등을 주변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었던 것도 이천도자기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천도자기의 특징은 전통도자기 재현에 성공했다는 평을 듣고 있는 훌륭한 작품과, 다양한 디자인의 섬세한 생활도자기를 숙련된 도공들이 손으로 제작해 타 지역에서 따를 수 없는 완성도를 갖고 있다는 데 있다.

은은한 멋이 흐르며 이를 바라보는 이들은 무아지경에 빠지게 하는 이천도자기를 알기 위해서는 신둔면 수광리와 이천읍 사음리를 중심으로 1백 50여 군데가 넘는 요장들이 밀집된 도예마을을 찾아가야 한다. 이 도예 마을에 들어서면 이천도자기의 대들보로 곳곳하게 가마를 지켜온 이를 만나볼 수 있다.

한국 도예계의 자존심으로 불리우는 서광수씨는 국내에서보다 일본에서 더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미 20여회에 이르는 일본 초대전을 치러 현지의 도예업계와 소장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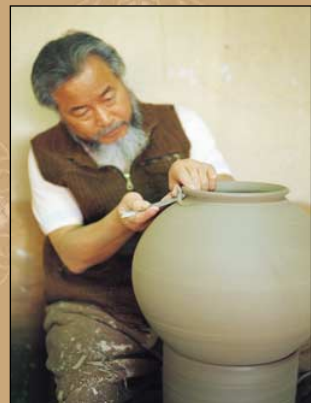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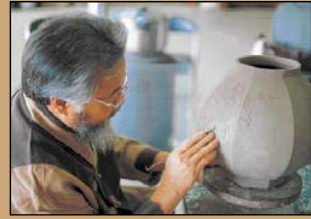
얻고 있는 서광수 씨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장작가마에서 작품을 빚는다.

서광수씨의 높은 신념과 의지는 그가 열고 있는 수많은 전시회만 보아도 단적으로 알 수가 있다. 그는 전통도예기법을 완성해 나가 자신의 작품세계를 펼친다. 그는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과 같은 뜻을 지닌 사람들을 위해 한국 전통도예협회전, 전통사기 7인전, 한국 전통공예가 협회전을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그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도자기를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한·중·일 전통 공예 작가전, 한미문화재단주최 미주순회전, 캐나다 한국 도자전 등 다수의 개인전을 통하여 해외에서 한국 전통도자기의 위상을 크게 높이고 있다. 또한 다른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던 진사분야를 독자적으로 연구하여 새로운 유약 개발등을 통하여 진사도자기의 보편화에 노력하고 있다.

진사백자(辰砂白瓷)란 도자기 바탕에 산화동(酸化銅:辰砂) 채료(彩料)로 그림을 그리거나 칠한 뒤 백자유약을 입혀서 구워내면, 산화동 채료(진사)가 붉은색으로 발색되는 자기이다.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사기그릇을 주점사기(朱點沙器), 진홍사기(眞紅沙器)라고도 불렀으며 진사백자라는 명칭은 20세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진사백자는 고려시대 중엽(12세기)부터 사용되었으며 가장 흔하게 쓰여진 것은 조선 후기인 18~19세기 무렵이다.

수백 점을 구워도 겨우5~6점을 건져낸다는 전통 장작가마에 40년째 예술혼을 불태우고 있는 서광수씨는 아무리 오랜 시간 공들여 빚은 작품이라도 가마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호하게 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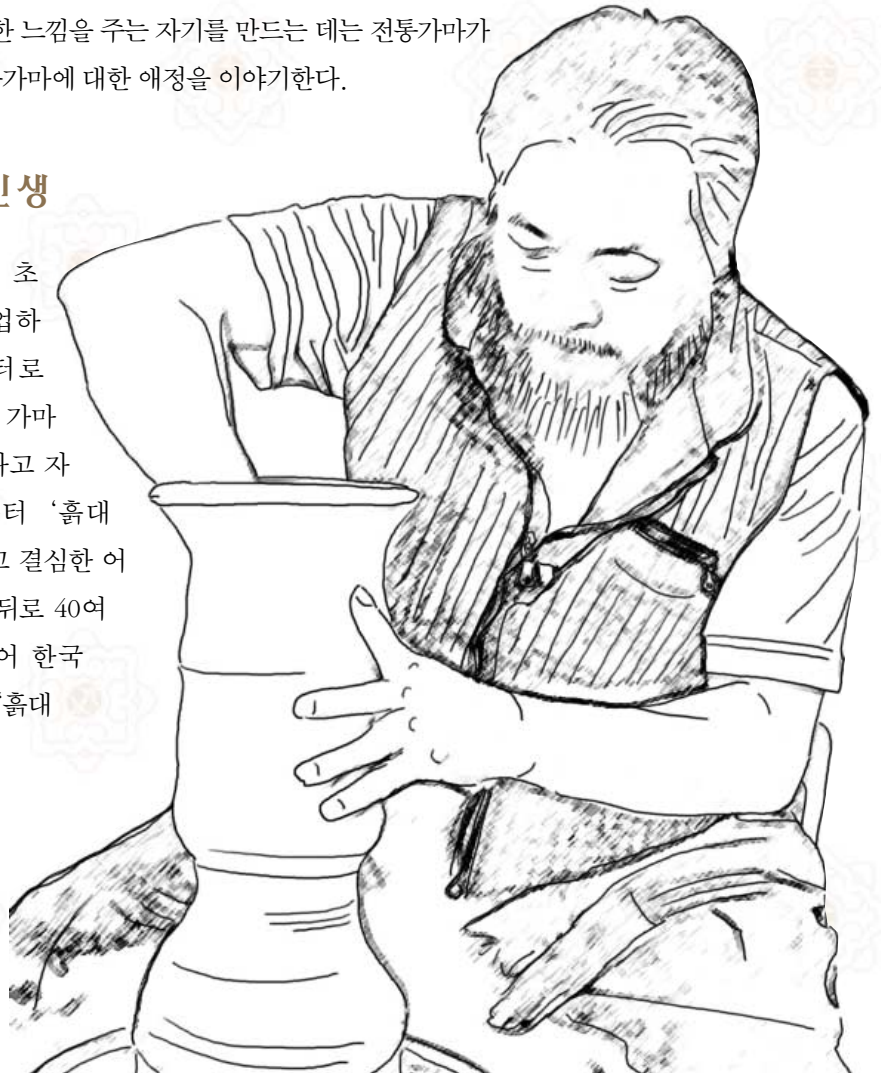
고비고비를 넘기고 끝까지 남은 작품들은 그의 이름과 함께 세계 각국의 도예소장가들에게 보내진다.

한국도예의 산지인 이천에 자리잡고 있는 선생의 작업실 ‘한도요’ 마당에는 집채만큼 쌓아 올린 장작더미들이 가득하다. 가마에 넣을 나무를 준비하고 말리는 일부터 흙을 빚고 유약을 바르고 가마에 굽는 일까지 선생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전통 도자기의 산지라는 이천에도 전통가마를 유지하고 있는 작업실은 단 2곳뿐이다.

“옛날에는 도자가 만드는 모든 과정을 배우고 익힌 후 도자기를 만들었지만 편리하고 효율성만을 따지는 최근에는 모든 과정을 모두 익힌 도예가들이 많지 않다.”고 말하는 그는 “전통의 색이나 맛인 투박하면서도 은은한 느낌을 주는 자기를 만드는 데는 전통가마가 최고”라며 전통가마에 대한 애정을 이야기한다.

도자기 인생

서광수씨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가마터로 들어가 버렸다. 가마터 주변에서 나고 자라 어릴 적부터 ‘흙대장’이 되겠다고 결심한 어린 소년은 그 뒤로 40여년 한길을 걸어 한국을 대표하는 ‘흙대장’이 되었다.



“흙덩이를 물레 위에 올려놓고 물레를 발로 툭툭 차면 여러 형태의 그릇이 쏟아져 나오는데 얼마나 신기하고 신이 나는지... 졸업만 해 바라하고 버르고 있다가 가마터로 출행량을 쳤지요.”라며 그는 웃음을 짓는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도자기를 만드는 일에 대해서 열망했는지를 이야기 해주는 일화이다.

서광수 씨는 청자와 백자, 진사, 분청 등 도자기의 전 장르를 다 빚을 줄 아는 장인이다. 그 중에서도 조선 백자를 옮겨 놓은 듯한 무자백자는 국내전문가와 일본인들에게도 극찬받고 있다. 그의 작품은 조선 시대의 것 그대로다. 소박하면서도 절제된 아름다움, 넉넉함과 부드러움, 사람의 마음을 한없이 편안하게 해주는 자연색채,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은 완벽한 조화는 그의 작품이 왜 그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단숨에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자연의 순리대로

“옛날 것들을 보면 그때 시절의 문화와 생활 환경이 딱 보이지. 그리고 그때 시절 도공의 마음도 담박 알지. 한마디로 신비롭지. 흙과 불과 도공이 딱 맞아 떨어진 것을 보면 마음이 든든하지.”

그는 옛 방식 그대로 자신이 배운 것과 터득한 방법에 따라 흙을 만들고 유약을 만든다.

흙의 배합에서부터 성형 유약과 그림, 조각과 가마를 지피는 일까지 모두 혼자서 할 줄 알고 혼자서 해오고 있다. 그의 작품은 누가 모방할 수도 없고 그 자신이라 해도 똑같은 작품을 또 만들어 낼수 없다. 흙을 빚어 장작 가마에 놓는 순간 사람의 의지는 떠나고 불이 마지막 빛깔을 장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인간 근원의 선을 구하는 마음으로 겸허한 조선도공의 모습으로 현대적인 것들과 저만치 떨어져 있는 그의 삶은 그 자체가 창작의 연속인 듯하다.